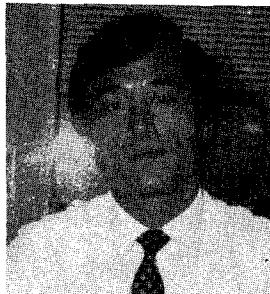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공동운명체의 주인의식으로 부터

이 경 원

미국대우협회 한국대표/
서울대, 메릴랜드대 강사/
미국 대우협회 경제분석역/
미국 북아이오와대학
경영학 강사, 경제학박사



오늘날 육류 및 고급 단백질식품에 대한 수요증가 현상은 일정한 경제 수준을 넘어선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추세이다.

한국도 그간 이룩한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이들 식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왔다. 특히 1988년 올림픽의 서울 개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민 체력향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육류 및 고단백 식품을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중지(衆智)가 모아져야 한다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토지면적과 과밀한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여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한국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축산·식품산업 기술 하에서 가장 좁은 면적에서 가장 많은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양계산업의 중요성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겠다.

이러한 양계산업의 중요성은 비단 식품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이 양계사료이며, 사료원료 수입을 통해 축적된 해외 자원수입 경험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없이 값진 것이다.

이처럼 양계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양계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실, 고도경제 성장에 수반된 인플레이션과 낙관적인 분위기속에 시행된 경제정책에 편승하여 소비는 미덕이며, 비싼 것은 곧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 1970년대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계산물 특히 계란은 소비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1970년과 1980년을 비교해 볼 때 10년동안에 명목가격은 3배 정도 올랐다고 하나 인플레이션과 여타 생활 필수품 및 관련원가의 상승률을 감안한 불변가격은 오히려 10년전의 1/3정도에 불과한 것이 계란가격이며, 지천에 흔한 것이 계란이니, 여기에 영양적 오해, 편견까지 가세되어 어느덧 계란은 값싸고, 또 사람에게 따라서는 열등 식품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와함께 생산적 측면에 내재된 양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소홀히 하거나 문제점

현장실무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교육기관 내지는 연구기관에 전이함으로써
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계인들이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을 때
업계 및 연관산업이 발전한다

들도 적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여타분야보다도 강한 부업적 성격, 영세한 자본, 비전문인력 및 유희노동력으로 구성되었던 초기의 양계종사자 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양계산업의 독특한 산업전통,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양계산물의 낮은 가격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상대적 저하,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취감 및 귀속감, 사회발전 속도에 못미치는 유통구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현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자는 자기가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또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양계산물의 효용에 편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필연적으로 양계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밖에 없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감으로써 양계산업은 현재의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들을 강조하고 싶다.

공동운명체라는 주인의식을 갖는 양계인이 되어야

첫째, 모든 양계인은 하나하나 공동운명체 의식 내지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호경기에는 더욱 많은 돈을 벌기위해

남보다 더 많이 기르려고 애를 씌으로써 곧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한다든지 불경기에는 자기만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투매를 서슴치 않는 식의 악순환은 이러한 공동운명체 의식 위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양계업 자체가 불황이면 나의 인생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주인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계인 모두가 적극적인 세일즈맨 되어야

둘째, 모든 양계인은 하나하나가 양계 산물의 적극적인 세일즈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계산물을 일단 문밖에 출하하고 나면 이제 나 알바 아니라는 식의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수요창출을 위해 공산품판매에서와 같은 애프터서비스 정신으로 유통과정, 가공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한 조리법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적 오해 내지는 편견을 해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응용·활용하는 양계인

셋째, 모든 양계인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원칙에 입각한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은 투철한 직업의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미 경험을 통해 얻어진 나름대로의 경영적 감각에 실용적 합리성을 뒷받침 해주게 된다.

양계인들이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을 때 업계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실무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교육기관 내지는 연구기관에 전이함으로써 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효율높은 양계사료가 생산되도록 사료산업을 발전 지향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부족한 외화를 들여서 수입한 사료

원료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등의 사례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양계인들은 산학협동을 통해 또는 전문 지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응용·활용하는데 게으르거나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산자는 조직화·집단화를 통해 업계의 안정적 발전유도해야

넷째, 개개인의 실천의지가 소기의 뜻한 바대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직화·집단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계인들도 양계협회와 같은 생산자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뜻은 있으나 개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업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들이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하나 둘 풀려 나갈 때 경제적 혜택의 증대는 물론 정신적 성취감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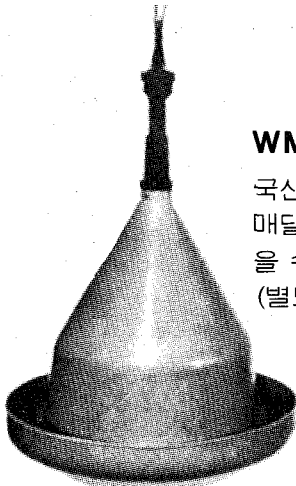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편의상 네가지로 나뉘었을 뿐 이상의 측면들은 기실 상호 순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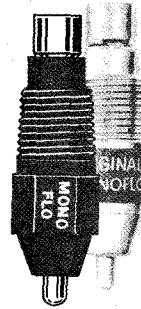
때문에 모든 양계인들의 적극적인 발전의지가 중요한 관건이며, 이를 위한 여건 조성(衆智)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고장없는 급수기 MONOF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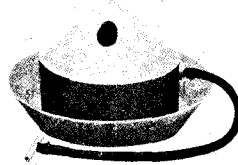
WM-5

국산보다 20% 크며
매달거나 바닥에 놓
을 수 있는 양용.
(별도 장치 불요)



케이지용 님플

플라스틱 파이프에
붙여 케이지 2 칸에
한개씩 설치하며 청
소가 필요없다.



Mini80

초생주 육추에 최적,
칙가드내에 설치 가
능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